

대학원생을 위한 인도불교 관련 필독도서 목록 (2013.8.29)

박창환 (금강대 불교학부)

*편집의 변: 인도불교 관련 석·박사 논문 준비나 종합시험 대비 등 어떤 목적으로든 읽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국내외 저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 인도불교사

히라카와 아키라, 이호근 번역 (1994), *인도불교의 역사* (2권), 민족사.

인도불교사에 관한 한 일본 불교학계의 역량을 총 결집한 역작이며 교과서적인 입문서이다. 특히 아비달마편이 동 주제에 대한 입문으로서 훌륭하다.

LAMOTTE, Etienne (1988), *History of Indian Buddhism*, Louvain/ 에티엔 라모트, 호진 역(2006). *인도불교사* (전2권). 시공사.

인도불교의 거장이 펼쳐내는 초·중기 인도불교 교단사의 정수이다. 인도 부파불교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으로는 가장 티테일하다.

GETHIN, Rupert (1998): *The Foundations of Buddhism*. Oxford University Press.

상좌부 아비달마 전문가가 남북전 아비달마를 비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탁월하다.

KALUPAHANA, David J. (1992), *A History of Buddhist Philosophy: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초기불교의 경험주의(empiricism)적 관점에서 인도불교사의 사상적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저자의 관점이 독특하며 국내학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 초기불교

월폴라 라홀라 지음, 전재성 옮김,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저자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What the Buddha taught*의 한국어역이다.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탁월하다.

미스타니 후미오, 이원섭 옮김, 불교개론, 현암사.

왕초보를 위한 불교 개론서이다. 쉽고 즐겁게 읽히는 책이다.

COLLINS, Steven (1980): *Selfless Person: Imagery and Thought in Theravāda Buddh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기불교의 무아론과 관련해서 언제나 인용되는 고전적 가치를 지닌 논저이며 저자의 철학적 깊이가 느껴지는 책이다.

HAMILTON, Sue (1996):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 Luzac oriental.

팔리 니카야를 중심으로 초기불교의 오온 개념 하나하나를 정치하게 분석한다. 불교의 핵심교리 중 하나인 오온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분을 위한 필독서이다.

HARVEY, Peter (1995): *The Selfless Mind*. London: Curzon Press.

영국 불교학회 회장을 지낸 저자가 무아론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의 주요 교리를 원전의 논의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평이하게 설명한다.

JAYATILLEKE, K.N. (1963),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칼루파하나 교수의 스승으로서 초기불교를 분석철학적 입장에서 해석한 고전적 저작이다.

■ 인도불교철학

카지야마 유이치, 권오민 옮김(1990), 인도불교철학, 민족사.

인도불교철학에 관한 한 일본에서 카지야마의 명성은 전설이다. 불교인식론의 학파적 태동과정과 그 이론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특히 좋다.

폴 윌리엄스, 앤서니 트라이브 지음, 안성두 옮김 (2011), 인도불교사상, 씨아이알.

인도불교사상에 대한 개관으로는 현재 서구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교과서적인 저술이다.

한자경(2006), 불교의 무아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불교철학자가 한역 자료에 의거하여 무아론의 사상사적 전개과정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DREYFUS, G. (1997), *Recognizing Reality: Dharmakīrti's Philosophy and its Tibetan Interpreters*, Albany, NY: SUNY.

티벳 하람과 게쉐 타이틀을 가진 스위스 출신의 티벳불교철학의 대가가 인도불교 최대의 사상가인 다르마끼르띠의 철학을 티벳주석 전통에 의거해 해설한다.

DUNNE, John L.(2006), *Foundations of Dharmakīrti's Philosophy*, Boston: Wisdom Publications.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이며 신선한 모험적인 관점이 돋보인다.

MATILAL, Bimal Krishna (1986): *Perception: An Essay on Classical Indian Theories of Knowledge*, Oxford.

마티랄 교수가 옥스포드대에 있을 때 그곳은 모든 인도철학 연구자들의 메카였다. 그 시절이 그림다. 대가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인도철학 입문서이지만, 바수반두-디그나가-다르마끼르띠로 이어지는 인도불교철학의 주류 전통에 대한 그의 이해는 심오하기 그지없다.

SIDERITS, Mark (2007), *Buddhism as Philosophy: An Introduction*,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imited.

불교학이 문헌학의 굴레를 벗어나서 독립된 철학적 담론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작이다. 이런 분은 종신교수로 SNU에 모셨어야 했다.

■ 아비달마 불교

권오민 (2004), 아비달마 불교, 민족사.

국내 최고 권위자가 집필한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책 말미에 부록으로 붙은 '후기'부터 읽어야 한다.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물이해를 질타하는 사자후와 만나게 된다.

권오민 (2012),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 씨아이알.

경량부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서 세계적인 연구성과이며 이 참고도서 목록의 저자로 하여금 상좌 슈리라타 관련 연구를 포기하게 만든 엄청난 작품이다.

목록 저자의 난해한(?) 논문들에 관심이 있다면,

박창환 (2013), 「구사론주 세친(Vasubandhu)과 현상주의적 언어철학」,

『동아시아불교문화』, 14 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_____ (2012), 「구사론주(kośakāra) 세친(Vasubandhu)의 번뇌론」.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상과 문화 제4호.
- _____ (2011), 「구사론주(kośakāra) 세친(Vasubandhu)과 『능가경』 (Laṅkāvatārasūtra)」, 『인도철학』 제32집.
- _____ (2010), 「구사론주 세친의 극미(paramāṇu) 실체론 비판과 그 인식론적 함의」, 『불교학리뷰』 8 호.
- _____ (2009), 「法稱(Dharmakīrti)의 감각지각(indriyapratyakṣa)론은 과연 經量部적인가?」, 『인도철학』 제 27 집.
- _____ (2013): “What are “Ācāryas” or “*Yaugācārabhūmikas” doing 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3-28ab?” in *The Foundation for Yoga Practitioners: The Yogācārabhūmi and Its Adaptation in India, East Asia, and Tibet*, edited by Ulrich Timme Kragh, Harvard Oriental Se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forthcoming), *Vasubandhu, Śrīlāta, and the Sautrāntika Theory of Seeds*,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Vienna: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 이종철 (2002), 「Vijñāna 에 관한 논변」. 불교학연구 창간호.
식 개념과 관련된 탁월한 언어학적 분석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 윤희조 (2012), 불교의 언어관, 씨아이알.
2 세설의 태동과 전개과정을 인도 불교, 특히 부파, 중관불교를 중심으로 평이하게 논의한다.
- BUSWELL, R.E. and P.S. JAINI (1996): “The Development of Abhidharma Philosophy.” In *Encyclopedia of Indian Philosophies*, edited by K. POTTER. Delhi: Motilal Banarsidass, pp. 73-119.
버클리 불교학자가 바라본 설일체유부 아비달마 발달사이다.
- COX, Collett (1995): *Disputed Dharmas: Early Buddhist Theories on Existence: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Section on Factors Dissociated from Thought from Saṅghabhadra's Nyāyānusāra*,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XI,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콕스는 자이니 이후 북미 최고의 아비달마 전문가이다. 중현의 순정리론에 대한 번역 연구서이다.
- DHAMMAJOTI, K.L. (2009): *Sarvāstivāda Abhidharma*, Centre of Buddhist Studies, Hong ko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대 불교학 센터의 담바조띠 교수도 아비달마 전문가이다. 설일체유부 교학의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FRAUWALLNER, Erich (translated by Sophie Francis KIDD) (1995): *Studies in Abhidharma Literature and the Origins of Buddhist Philosophical System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슈미트하우젠의 스승인 비엔나의 프라우발르너는 유럽 불교문헌학의 종조와 같은 분이다. 아비달마 전통에 대한 유럽 문헌층위분석법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 FUKUHARA Ryōgon 福原亮嚴 (1965): *Ubu abidatsuma ronsho no hattastsu* 有部阿毘達磨論書の發達. Kyoto: Nagata Bunshōdō.
일본의 아비달마 불교사 연구서이다.
- JAINI, Padmanabh S. (2001): *Collected Papers on Buddhist Studies*, edited by Padmanabh S. Jaini.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아비달마 불교의 세계적 대가인 자이니 교수의 50 년에 걸친 아비달마연구의 정수를 집약한 논문집이다. 지금 읽어도 여전히 감탄하게 된다.
- KATŌ Junshō (1989): *Kyōryōbu no kenkyū* 經量部の研究. Tokyo: Shunjūsha.

-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경량부란 학파의 기원을 중현의 순정리론을 중심으로 파해친 역작이다. 지금의 경량부 기원 연구의 시발점이 된 문체작이다.
- KUSUMOTO Nobumichi (2007): *Kusharon ni okeru seshin no engikan* 俱舍論における世親の縁起觀. Kyoto: Heirakuji Shoten.
- 히로시마대 시절의 카츠라 쇼류 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된 구사론 연기설에 대한 엄밀한 문헌학적 연구이다.
- DE LA VALLÉE POUSSIN, Louis (1928-1929): *Vijñaptimātratāsiddhi: La Siddhi de Hiuan-tsang* (French translation of Ch'eng wei shih lun). 2 vols. Paris: Paul Geuthner.
- _____ (1988-1990): *Abhidharmakośabhāṣyam* by Louis de La Vallée Poussin, 4 vols., English translation by Leo M. PRUDEN,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아비달마 분야에서 벨기에의 라 벨라 프시앵의 구사론 불역은 이미 이 분야의 전설이다. 불교철학의 대백과사전과 같은 역주로 어디를 펼쳐도 얻을 것이 있다.
- LEE, Jong Cheol 李鍾徹 (2001a): *The Tibetan Text of the Vyākhyāyukti of Vasubandhu: critically edited from the Cone, Derge, Narthang and Peking Editions*. Tokyo: Sankibo.
- _____ (2001b): *A Study of Vasubandhu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yākhyāyukti*. Tokyo: Sankibo.
- 한국학계에서는 거의 잊혀진(?) 학자, 하지만 그의 논저는 의심할 바 없이 세계적 수준이다. 석계론을 중심으로 한 세친 사상 연구의 물꼬를 튼 역작이며 저자에게 일본 불교학계의 대표적 학술상인 스즈키 다이세쓰 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 SAKURABE Hajime 桜部建 (1969a): *Kusharon no kenkyū* 俱舍論の研究, Kyoto: Hōzōkan.
- 경도 오타니대의 사쿠라베는 일본에서 구사론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 WILLEMEN, Charles, Bart DESSEIN, and Collett COX (1998): *Sarvāstivāda Buddhist Scholasticism*, Leiden: Brill.
- 3 인 공저의 설일체유부 아비달마 입문서이나 혹자는 콕스 이외의 저자들에게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학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주요교리에 대한 개관을 망라함으로써 초심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 대승불교

- 시즈타니 마사오, 문을식 옮김, 대승불교_새로운 민중불교의 탄생, 여래.
- 대승불교에 대한 교과적인 접근이다. 대승불교가 ‘민중불교’인지를 모르겠다.
- 폴 윌리엄스 지음, 조환기 옮김(2000), 대승불교: 서양학자가 본(시공불교총서 10), 시공사.
- 서구근대 불교학의 비판적 관점에서 대승불교의 여러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책. 영어로 된 대승불교 입문서로서 최고의 책.
- WILLIAMS, Paul (2000): *Buddhist Thought : A Complete Introduction to the Indian Tradition*. London: Routledge.
- _____ (2009): *Mahāyāna Buddhism*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폴 윌리엄스의 대승불교 제2판은 초판의 인기에 힘입어 초판을 상당부분 확대 증보한 버전이다. 특히 50여 페이지 분량의 서문은 대승불교의 핵심을 찌르는 탁견을 보여준다.
- SCHOPEN, Gregory. (2005). *Figments and Fragments of Mahayana Buddhism in India*. Hawaii.
- 울장 연구와 고고학적 성과에 의거해 인도 대승불교를 바라보는 놀랍도록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이하의 논문집들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을 좀 줄이시면

장수하실 것이다.

SCHOPEN, Gregory (1979): "Mahāyāna in Indian Inscriptions." *Indo-Iranian Journal* 21, pp. 1-19.

_____ (1997):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Texts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_____ (2005): *Figments and Fragments of Mahāyāna Buddhism in Ind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Shimoda Masahiro 下田正弘 (1997), 涅槃經の研究: 大乘經典の研究방법試論, 春秋社.

도교대 교수인 저자가 대승불전을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하는 지를 보여주는 문제의 역작.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요즘 굉장히 활동적이다.

■ 중관불교

김성철(2006), 중관사상, 민족사.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간명한 중관불교 입문서이다.

가지야마 유이치 지음, 정호영 옮김 (1989), 공의 논리, 민족사.

중관불교의 대가가 풀어내는 공 개념에 대한 고전적인 저작이다.

용수보살 지음, 김성철 옮김(1993), 중론, 민족사.

중관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수의 중론을 범어 원문으로 탐독하는 것은 필수이다. 국문/한문 번역이 병기되어 있어 유용하다.

GARFIELD, Jay (2001), *Empty Words: Buddhist Philosophy and Cross Cultural Interpretation*,

미국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의 중관불교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MURTI, T.R.V. (1955),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 London: Allen & Unwin.

중관 불교의 공개념에 대한 고전적 해석이며 서양철학(특히 칸트)과의 비교가 흥미롭다.

RUEGG, D. Seyfort (1992): *Buddha-nature, Mind and the Problem of Gradualis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Delhi: Heritage Publishers.

_____ (2000): *Three Studies in the History of Indian and Tibetan Madhyamaka Philosophy: Studies in Indian Tibetan Madhyamaka Thought Part I*. Vienna: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_____ (2002): *Two Prolegomena to Madhyamaka Philosophy: Candrakīrti's Parāśarīyapadā Madhyamakavṛttiḥ on Madhyakamakārikā I.1 and Tson Kha Pa. Annotated Translations: Studies in Indian and Tibetan Madhyamaka Thought Part 2*,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Heft 54, edited by Ernst STEINKELLNER. Vienna: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루엑은 중관 불교의 문헌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용되는 이 분야의 대가였다.

WESTERHOFF, Jan (2009), *Nagarjuna's Madhyamaka: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최근에 읽어본 중관 관련 저서 중에서는 가장 흥미로웠다. 저자는 30대초반의 독일인으로 재작년에 SNU에서 초청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살리에르의 비애를 체감하게 하는 인물이다.

■ 유식불교

나가오 가진 지음, 김수아 옮김(2005), 중관과 유식, 동국대 출판부.

나가오 선생은 일본에서 유식불교 연구의 전설이다. 대가가 바라본 중관과 유식의 대비가 신선하다.

요코야마 고우이츠 지음, 묘주 옮김(2004), 유식철학, 경서원.

식전변 개념을 중심으로 아뢰야식의 묘의에 접근하는 교과서적인 저술이다.

ANACKER, Stefan. (1984): *Seven Works of Vasubandhu: The Buddhist Psychological Doctor*. Delhi: Motilal Banarsidass.

세친의 유식관련 텍스트 7 종을 모아 번역하였다. 가지고 다니기 좋아 편리하다.

BUESCHER, Hartmut (2008): *The Inception of Yogācāra-Vijñānavāda*,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슈미트하우젠의 아뢰야식 멸진정 기원설을 정면에서 반박한 용감한 덴마크 거주 독일학자의 문제작이다. 2009 가을에 금강대에서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집중 워크숍을 열었고 본인의 철학적/문헌학적 내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DELEANU, Florin (2006): *The Chapter on the Mundane Path (laukikamārga) in the Śrāvakabhūmi, A Trilingual Edition (Sanskrit, Tibetan, Chinese), Annotated Translation, and Introductory Study*.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일본국제대학원대학의 유식학 교수인 저자는 루마니아 출신으로서 독일 함부르크대의 슈미트하우젠에게서 사사를 받아 문헌학적 기반이 탄실하다. 유가사지론 연구의 입문서로서 언제나 추천하는 탁월한 저술이다.

HAKAMAYA Noriaki 袴谷憲昭 (2001): *Yuishiki shisō ronkō* 唯識思想論考. Tokyo: Daizō Shuppan.

독일의 슈미트하우젠과 일합을 겨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본학자 중의 한 명이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하나 하나가 학계의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큰 논문들이다.

KRITZER, Robert (1999): *Rebirth and Causation in the Yogācāra Abhidharma*,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44, Vienna: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아비달마집론에 의거하여 유식의 연기사상을 분석한 책이다. 크리처 교수는 바로 이 저술에서 문제의 ‘구사론 경량부설의 유가사지론 기원설’을 주장한다. 이에 열 받은 본 목록의 저자가 “*Vasubandhu, Śrīlāta, and the Sautrantika Theory of Seeds*”를 집필하게 된다.

ROSPATT, Alexander von (1995): *The Buddhist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the Origins and Early Phase of this Doctrine up to Vasubandhu*, Alt-und Neu-Indische Studien,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버클리대 인도불교 담당인 로슈팻 교수는 슈미트하우젠의 수제자였고 목록 저자의 두번째 지도교수이기도 하였다. 세친까지의 불교 찰라멸론의 흐름에 대한 연구서로는 가장 탁월한 저술이다. 독일인의 글쓰기의 엄밀함과 정치함을 보여준다.

SCHMITHAUSEN, Lambert (1967): “Sautrāntika-Voraussetzungen in *Vimśatikā* und *Trimśikā*.”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11, pp. 109-136.

____ (1969a): “Zur Literaturgeschichte der Alteren Yogācāra-Schul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Supplementa* I. 3, pp. 811-823.

____ (1987):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ācāra Philosophy*. Vol. 4a and 4b,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Tokyo.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식불교의 세계적 대가이다. 이 분을 끝으로 대가의 시대는 저문 것 같다.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아뢰야식 연구는 그 결론의 정오 여부를 떠나서 불교텍스트(이 경우는 유가사지론)에 대한

상세한 층위분석(text-stratum analytical)을 통해 불교 이념사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케이스이다.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책을 이해하는데 15 년이 소요되었다.

SUGURO Shinjō 勝呂信静 (1989): *Shoki Yuishiki shisō no kenkyū* 初期唯識思想の研究. Tokyo: Shunjū-sha.

슈미트하우젠의 아뢰야식이 출간된 직후 이와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일본의 수구로 선생의 아뢰야식 기원에 관한 고전적 연구서이다.

WALDRON, William S. (2003): *The Buddhist Unconscious: The ālayavijñāna in the context of Indian Buddhist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미국학자가 아뢰야식의 사상사적 전개과정을 유려한 필치로 풀어낸 저술이다. 타인의 저술을 잘 인정하지 않는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입문서로 추천한 책이다.